

주지훈 “쫓기는 세자에서 쫓는 세자로 변신”

넷플릭스 '킹덤' 시즌2 13일 공개

영의정 류승룡

“권력을 향한 인간의 욕망은 얼마나 무서운지...”

의녀 배두나

“반전에 또 반전
대본 읽어보니 혁 소리 나”

작가 김은희

“피를 탐하는 병자들과
혈통을 탐하는 인간들의
상반된 세계 보여줘”



지난해 1월 세계 190개국에 동시 공개돼 호평을 받은 한국 최초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킹덤'이 1년 만에 두 번째 시즌으로 돌아왔다.

'킹덤'은 해외 공포 영화의 단골 소재 좀비를 조선시대 굶주린 민초들 사이 퍼지는 역병으로 해석, 동서양의 절묘한 조화로 세계 시청자를 사로잡았다. 특히 북미 지역에서 '갓' 열풍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끌어냈다.

배우 주지훈(38)은 5일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킹덤2' 제작발표회에서 “시즌1의 떡밥이 참 잘 회수가 된다. ‘대수거’ 된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시즌1은 역병 감염자와의 대진부 직전 이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빛의 유무가 아니라 온도였다는 거대 ‘떡밥’을 던지며 끝냈다.

주인공 세자 이창을 연기하는 주지훈은 “이번엔 쫓기는 자에서 쫓는 자가 된다”라고 시즌2에서의 변화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의 '킹덤'과 현재 출연

중인 SBS TV '하이엔나'의 제작 환경 차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다르다. '하이엔나'는 16부작이고, '킹덤'은 하루에 모든 것이 스트리밍되는 서비스다. 애초에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촬영 횟수, 촬영에 임하는 스태프의 수 등이 전 반적으로 다르다”고 밝혔다.

의녀 서비 역을 맡은 배두나(41)는 시즌2 대본을 접한 후 반응을 묻는 말에 “처음 읽어봤을 때 ‘학’ 하는 소리가 났다. ‘정말? 이렇게? 이 사람이?’ 이런 느낌이 있었다. 반전에 반전이 있고 배우들도 깜짝 놀랐다”라며 기대감을 키웠다.

자신의 역할에 대해선 “시즌1에선 생사역(역병 환자)이 등장한 뒤 상황에 적응하는 시간이었다면 시즌2에서는 상황 파악을 끝내고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 시즌1에 비해 조금 더 성장해 안정감 있는 모습이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선엔 손아귀에 넣으려는 영의정 조학주 역의 류승룡(50)은 “이번에도 시즌

1에서의 긴장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움직임이 크지 않지만, 인간의 욕망이 생사역보다 무섭다는 걸 표현하려 애썼다”고 밝혔다.

국내 최고 장르극 작가인 김은희 작가는 “이번 시즌에서는 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보고 싶었다. 붉은 피 말고도 핏줄, 혈통에 관한 얘기”라며 “피를 탐하는 병자들과 혈통을 탐하는 인간들의 두 가지 상반된 세계를 보실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현의 ‘깜짝’ 출연에 대해 김 작가는 “극을 구상하다가 전지현 씨에게 잘 어울릴 것 같은 배역이 있어서 제안했는데 정말 고맙게도 받아들여 주셨다. 어떤 캐릭터인지는 시즌2를 보시면 아실 것”이라며 웃었다.

추후 시즌3 제작 가능성에 대해선 “시즌2가 잘 돼야 시즌3 제작이 가능하다. 시즌2를 여러분이 사랑해주면 더 커진 세계관의 시즌3를 보실 수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시즌10까지 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시즌1이 조선에 탁틴 위엄을 장대하게 보여주는 데 집중했다면, 시즌2는 권력을 향해 그칠 줄 모르는 세도기들의 욕망에 깊숙이 파고든다. 시즌1의 김성훈 감독은 시즌2 첫 에피소드부터 연출을 맡고, 두 번째 에피소드부터 영화 '모비딕', '특별시민' 등을 연출한 박인제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이러한 공동 연출 시스템에 대해 김성훈 감독은 “창작자 입장에서 분량에 대한 부담이 줄면서 작품 본질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어서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 시청자는 다양한 감독들의 개성이 담긴 작품을 즐기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제 감독은 “이 작품을 하다 보니 선조들의 간혹미, 색감, 디테일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다. 시즌1에선 인간이 쓰고 있는 장신구에 해외 시청자들이 쫓았다면, 시즌2에선 한국으로 관광을 많이 오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오는 13일 넷플릭스 공개. /연합뉴스

심은경, 일본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영화 '신문기자' 출연

배우 심은경이 일본 아카데미에서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한국 배우가 이상을 받은 것은 1978년 일본 아카데미상 제정 이래 처음이다.

심은경은 최근 오후 도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43회 일본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영화 '신문기자'로 최우수 여우주연상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날아라 사이타마'의 니카이도 후미 등 일본 여배우 4명을 제치고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앞서 한국 배우로는 2010년 배두나가 '공기인형'으로 우수 여우주연상을 받은 게 가장 좋은 성적이다.

일본 아카데미상은 주요 부문에 우수상을 시상하고 시상식 당일 우수상 수상자 가운데 최우수상을 발표한다. 심은경은 다른 배우들과 함께 지난 1월 우수 여우주연상 수상자로 지명됐다.

심은경은 이날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고, 무대 위에서 눈물을 쏟으며 일본어로 “수상을 전혀 예상 못 해서 아무런 준비를 못 했다.



죄송하다”며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겠다. 정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문기자'는 일본 정권에서 벌어진 정치 스캔들을 통해 국가와 저널리즘 이념을 비판한 영화로, 아베 총리가 연루된 사학 스캔들과 내용이 유사해 관심을 모았다. 이 작품은 최우수 작품상과 최우수 남우주연상(마츠자카 토리)도 받았다.

심은경은 한국인 어머니와 일본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신혼사 사회부 4년 차 기자 요시오카를 연기했다.

1년간 일본어를 공부한 뒤 일본어로 연기한 심은경은 감정을 세밀하게 표현해 제74회 마이니치 영화 콩쿠르에서도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연합뉴스

코로나19 ... '007시리즈' 등 개봉 줄줄이 연기

코로나19 여파로 개봉을 연기하는 영화가 잇따르고 있다.

유니버설 픽처스는 5일 당초 내달 개봉 예정이던 '007 타임 투 다이' 개봉일을 11월 25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영국에서는 11월 12일로, 국내 등 전세계 극장가 개봉일은 모두 11월 25일로 연기됐다. '노 타임 투 다이'는 007시리즈 25번째 작품이자, 주인공 제임스 본드 역을 맡은 배우 다니엘 크레이그가 마지막 출연하는 007 영화다.

이번 달 개봉 예정이던 '와이어트 플레이스 2'도 개봉을 잠정 연기했다. 국내 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는 “국내 상황에

따라 추후 개봉일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와이어트 플레이스 2'는 2018년 개봉한 에밀리 블런트 주연 '와이어트 플레이스' 속편이다. 전편은 일가족이 소리를 내며 공격하는 생명체의 위협을 받게 된다는 설정으로 깜짝 흥행에 성공했다.

개봉 예정 영화들이 잇따라 개봉을 미루면서 3~4월 개봉을 추진했던 아직 개봉 날짜를 확정하지 못한 영화만 50편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사냥의 시간' '후쿠오카' '이장' '법정' '결백' '기생충' '흑백만', '콜' '물린' '나의 촛불' '침입자' '주디' '부네베어: 원시시대 대모험' 등이 개봉을 연기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0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0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나쁜사람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0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맛 좀 보실래요
0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강력추천 배틀트립	30 930 MBC 뉴스 5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3차 공직선거 정책토론회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제21대 총선 공직선거 정책토론회 제3차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00 귀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0 무한리플 샐러드	00 12 MBC 뉴스 20 호기심대장 키토 50 뽀뽀부 모두야 놀자 스페셜	00 SBS 12뉴스 40 아무도 모른다(재)
11	00 다큐멘터리 3일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0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40 생활의 발견 스페셜 50 영화가 좋다(재)	20 헬로키즈 동물교실 2 50 2시 뉴스 외전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00 뉴스브리핑
13	00 남북의 창(재) 40 생로병사의 비밀 스페셜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20 TV 유치원 50 살리는 남자들(재)	20 나쁜사람(재)	
14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건건		00 좌충우돌 만국 유람기(재)	00 브라보 마이 라이프(재)
1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00 대화의 히열 스페셜 (천종호 판사 편)	00 5 MBC 뉴스 2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뉴스
1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1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우기	50 우아한 모녀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시사타치! 따따부따(재)
18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벌24 55 육탐방의 문제아들	55 스트레이트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1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50 배철수 점	40 아무도 모른다
20	00 가요무대	10 개는 훌륭하다	55 리얼연애 부러우면 지는거다	
21	05 더 라이브 45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0 TV는 사랑을 싣고(재)		0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22	05 저널리즘 토크쇼 J(재)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더 게임:0시를 향하여	20 나이트 라인 50 전국 TOP 10 가요쇼(재)

EBS1

07:00 로보카 폴리	13:00 EBS 다큐프라임	18:00 생방송 특!톡! 보니 하니
07:30 뽀뽀뽀 뽀로로	13:55 별일 없이 산다	19:00 스파이더맨
08:00 당동명 유치원	14:45 몰랑	19:30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08:30 애코와 친구들	14:55 용감한 소방차 레이(재)	20:00 머털도사
08:45 최고! 호기심딱지	15:10 로보카 폴리(재)	20:30 아옹명명 귀여워(재)
09:00 엄마 까투리	15:25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9:30 윈디블스	15:55 엄마 까투리(재)	<푸드 트립 스페인
09:40 아옹명명 귀여워2	16:10 최고! 호기심딱지(재)	-행복한 미식 자치주 바스크>
10:00 특집 부모특강-0.1%의 비밀	16:25 페퍼 피(재)	21:30 한국기행
10:30 한국기행(재)	16:40 당동명 친구들-장난감나라의 비밀	<당신은 어디에 살고 있나요 1부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느긋해도 괜찮아, 금오도>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그림을 그려요	21:50 EBS 다큐프라임
12:00 EBS 정오뉴스	17:30 애코와 친구들(재)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12:10 다문화 고부 열전	17:45 마사와 곰(재)	23:35 별일 없이 산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9일(음 2월 15일 辛亥) ☎ 010-9790-8237

<p>36년생 갈구하여 왔던 바를 이룬다. 48년생 새움지마가 될 수도 있는 법이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의연히 대처하자. 60년생 화재거리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느니라. 72년생 거의 같다. 84년생 시작이 반이 될 것이니 과감한 실행을 요한다. 96년생 참신한 변화를 모색해 보는 것도 괜찮다. 행운의 숫자 : 00, 87</p>	<p>42년생 훨씬 진전된 하루가 될 것이다. 54년생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66년생 요점을 잘 들여다보면 답이 나온다. 78년생 시작이 반이 될 것이니 과감한 실행을 요한다. 90년생 자발적인 자세가 상승효과를 보일 것이다. 02년생 내색할 단계가 아니다. 행운의 숫자 : 08, 85</p>
<p>37년생 안심하기에 아직 시기상조이다. 49년생 요점을 잘 들여다보고 있다면 반드시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61년생 쉽게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느니라. 73년생 있는 그대로 판단해야 실수가 없을 것이다. 85년생 처음과 거의 대동소이한 흐름을 보일 것이나, 97년생 신중을 기한다면 액을 비켜 가리라. 행운의 숫자 : 12, 56</p>	<p>31년생 오랫동안 진행 될 것이니 장기적으로 대비 해야겠다. 43년생 극적인 것 보다 전체적인 것의 관심이 요구된다. 55년생 액면 그대로 인식해야만 명징한 관점을 확보한다. 67년생 치밀하게 준비하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때다. 79년생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자. 91년생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할 때다. 행운의 숫자 : 49, 81</p>
<p>38년생 어떻게 하든지 결과는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50년생 학수고대하며 갈구해 왔던 바를 이룬다. 62년생 각별히 신중을 써야 할 때라고 할 수 있느니라. 74년생 미연에 조지 할 위험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86년생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이 더 많이 발생하리라. 98년생 신빙성 있는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53, 61</p>	<p>32년생 막힌 곳은 속명적으로 뚫어야겠다. 44년생 진중한 자세를 견지해 나가는 것이 옳다. 56년생 목적에 부합한다면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이롭다. 68년생 지금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80년생 실수에 배부르랴? 92년생 사람들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47, 63</p>
<p>39년생 사실부터 파악해 두고 볼 일이다. 51년생 행운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63년생 폭염 속에서 폭우가 쏟아짐에 비유할 만하다. 75년생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틀림없을 것이나, 87년생 예상 했던 바와 정반대로 될 수도 있다. 99년생 판시세가 주기적으로 반복될 뿐이다. 행운의 숫자 : 24, 88</p>	<p>33년생 부정적인 요소가 생기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하면 그만이다. 45년생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지 않음이 무난하다. 57년생 그나마 더운갈이 할 정도는 되겠다. 69년생 분명히 기회는 주어진다 사실을 알라. 81년생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각적으로 쉽게 현혹 될 수도 있느니라. 93년생 과격적인 발전으로 인해 성과가 크겠다. 행운의 숫자 : 33, 83</p>
<p>40년생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발전된 양상으로 이끈다. 52년생 오늘의 선택을 잘 한다면 뒷일이 수월 해지리라. 64년생 지금 즉시 뜻을 펼쳐보는 것도 기대해 볼만 하다. 76년생 함께하는 이와와 호흡이 중요하다. 88년생 의욕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겠다. 00년생 상당히 생기겠지만 거의 없어지게 된다. 행운의 숫자 : 35, 98</p>	<p>34년생 전체를 아우르면서 일일이 따져보면 결과적으로 거의 같다. 46년생 있는 그대로 판단해야 실수가 없을 것이다. 58년생 기분에 좌우된다면 큰일 나는 수가 있다. 70년생 넘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 82년생 이제야 결단력을 보여줘야 할 때가 되겠다. 94년생 멀리 내다 볼 수 있는 시야의 확보가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16, 99</p>
<p>41년생 행운을 이끄는 길잡이 비추고 있다. 53년생 다른 일이 겹쳐서 복잡해지는 형상이다. 65년생 너무 이면이 많아서 중립무진 할 수도 있다. 77년생 평상시에 안전 의식을 잊지 말아야 면역할 것이다. 89년생 뜻 깊은 날이다. 01년생 대폭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행운의 숫자 : 29, 74</p>	<p>35년생 결실을 보기 시작하는 수확기에 접어들고 있느니라. 47년생 결함이 보이지만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59년생 투명하고 정확해야 뒤따라 없을 것이다. 71년생 양자 사이에서 애매한 부분이 보인다면 중용의 입장을 취하라. 83년생 단순한 비교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느니라. 95년생 당연시 해왔던 것이 현재 보인다. 행운의 숫자 : 22, 96</p>